# 朝鮮王朝의 迎接都監 賜祭廳 儀軌에 관한 分析的 硏究(1609年)

**金尙寶 · 李盛雨***

대전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92년 3월 19일 접수)

# An Analytical Study on the Youngjeob Dogam Sajechong Euigwae of Choson Dynasty(1609 year)

**Sang Bo Kim · Sung Woo Lee**

*Taejeon Medical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 Yang University**

(Received March 19, 1992)

## ABSTRACT

To analyze royal and Chinese envoy procession, and sacrificial rite of Chinese envoy for Choson Dynasty, the author studied historic book-Youngjeob Dogam Sajechong Euigwae of Choson Dynasty (1609 year) in which Chinese envoy procession(賜祭班次) for sacrificial rite in Choson Dynasty(1609 year) were describ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ydy were as follows.

1. Sacrificial rite of Chinese envoy for Choson Dynasty were Yellow paper burning(焚黃儀) and performing a sacrificial rite of Chinese envoy(賜祭儀).

2. Order of Chinese envoy procession for Yellow paper burning (焚黃儀) and performint a sacrificial rite of Chinese envoy(賜祭儀), was civil and military officers, flag procession, drum, palanquin of incense, palanquin of guneral oration, palaquin of material for guneral expenses, palanquin of rich viands and sumptuous fare and Chinese envoy.

3. Things offered in sacrifice of Yellow paper burning were fried cake made of wheat flour, honey and oil(中朴桂, 4 dishes), fried gutinous rice cake(散子, 5 dishes), patterned savory cake(茶食, 5 dishes), fruits(實果, 6 dishes), meat fish and others broil(炙, 3 dishes), slices of boiled beef(熟片, 3 dishes), soup(湯, 4 dishes), stew(蒸, 2 dishes), noodles(麵, 1 dish), 3cups of alcohol(3爵), rice cake (餠, 6 dishes) and water.

4. Things offered in sacrifice of performing a sacrificial rite of Chinese envoy were a cattle, a hog, a sheep, 3cups of alcohol and etc.

## Ⅰ. 서 론

迎接都監은 朝鮮王朝에서 明나라와 淸나라의 使臣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 職所로서, 영접도감에서 하는 일의 전말을 儀軌를 통하여 영접절차와 각종 의식 및 이에 소요되는 물품 조달 인력 동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였다.

本 報告의 1609年의 迎接都監 賜祭廳 儀軌는 賜諡誥命 賜祭 등을 위하여 온 明나라 사신과 사신과 함께 무역을 위하여 오는 사신 수행원인 頭目, 그리고 이들을 영접하는 朝鮮朝의 百官들에 대한 天使班次와 祭物陪進班次를 기록한 것으로서 天使班次를 통하여 朝鮮王朝에서의 中國使臣迎接 班次 文化와 祭物陪進班次를 통하여 賜祭文化의 일단을 究明할 수가 있다.

1609年은 光海君 元年으로 그해 4月 25日 宣祖 諡號[1]를 위하여 明나라에서 賜祭 天使가 入京하여 5月 6日 本國으로 돌아갔다[1].

賜祭 天使가 入京하면 朝鮮王朝에서는 迎賜諡祭及弔賻儀[2]를 통하여 영접하고 賜賻儀[3]에서 중국에서 내리는 賻物을 받은 다음, 바로서 賜諡儀[4]에서 諡號를 하사하는데 하사할 때는 그 하사에 관한 사유를 黃紙에 기록하고 이날 誥命이라 하며[5] 賜諡儀가 끝나면 誥命을 宗廟에 고하는 의식인 焚黃儀를 통하여 黃紙는 불태워버리고 이에 대한 祭賜를 행하고 이를 焚黃祭[6] 라 하였다.

焚黃祭가 宗廟에 고하는 의식으로서 中國 使臣이 없는 가운데 행하여진 의식이라면 焚黃祭가 끝난 후 吉日을 택하여 하는 賜祭儀는 中國使臣이 주관하는 祭祀였던 것이다.[4]

本 報告는 迎接都監 賜祭廳 儀軌를 分析 究明해 봄으로서 朝鮮朝의 中國使臣迎接班次 文化와 賜祭文化의 일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 Ⅱ. 班次圖

### 1.天使班次圖

圖1은 1609年의 賜祭天使 入京時 天使 班次圖로서 班列의 순서에서 百官과 遠接使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 도착 후 弘濟院에서 慕華舘까지의 班次圖로 생각된다. 즉 서울에 들어오는 最終的인 고개인 弘濟院에는 樓가 있어 中國使臣들이 遠路에 입고온 衣服을 벗고 새로운 衣服으로 바꾸어 입었으며 이곳에서 更衣 후 百官들의 영접을 받으며 慕華舘으로 향하였다[5]. 弘濟院에서 慕華舘까지의 百官 중심의 班列은

百官←黃儀仗←鼓樂←香亭←祭文龍亭←賻物
綵擧←牢饌架子←使者←遠接使(圖1)

로서 이들의 사신 일행은 入京 時의 첫번째 영접지인 慕華舘에서 영접의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班列은 祭文龍亭과 賻物 및 牢饌에서 賜賻儀·賜諡儀·賜祭儀를 위한 물품을 운반하는 賜祭天使班列이다. 宣祖 諡號의 용건으로 온 이들을 朝鮮王朝에서는 "迎賜諡祭及弔賻儀[6]" (중국에서 諡祭와 弔賻를 내려준 것을 맞이하는 의식)를 통하여 慕華舘에서 맞이하였다. 慕華舘에서의 영접 절차는 本論文에서는 자세한 기술이 여려우나 다만 慕華舘의 서북쪽에다 남향하여 帳殿[7]을 設하고 結彩[8]하여 紅門을 帳殿의 북쪽에 세우고 結彩하며 殿下의 幄次[9]를 慕華舘에

1) 金尙寶 · 李盛雨, 朝鮮王朝의 迎接都監盤膳色儀軌에 관한 分析的 硏究, 한국식문화학회지, Vol.6, No.4, 1991.
2) 金在得, 古文獻用語解例, 培英社, 1983.
3) 諸橋轍次, 大漢和辭典7卷, 大修館書店, 昭和61年.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헌대왕실록21, 천풍인쇄주식회사, 1981, pp. 336 ~ 350.
① 諡號 : 종친 및 문무관 실직적 2品 이상자의 死後에 追贈하는 칭호
② 迎賜諡祭及弔賻儀 : 중국에서 諡祭와 弔賻를 내려준 것을 맞이하는 의식
③ 賜賻儀 : 중국에서 내리는 賻物을 받는 의식
④ 賜諡儀 : 중국에서 내린 諡號를 받는 의식
⑤ 焚黃儀 : 黃紙에 쓴 誥命을 宗廟에 告하는 의식
⑥ 天使 : 天國의 使者, 天國은 明나라를 가리킴.
5) 李鉉淙, 明使接待考, pp. 128 ~ 129.
6) 세종장헌대왕실록21, pp. 336 ~ 339
⑦ 天使 : 天國의 使者 즉 中國의 사신
⑧ 班次 : 지위의 순서 班列, 班次圖 : 儀式등에서 늘어서는 차례를 적은 그림
⑨ 賜祭 : 大臣이 죽었을 때 皇帝가 勅使를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는 것

남향하여 설치하고 龍亭을 세우고 帳殿外 左右편에 上王과 王의 位座를 만들고 百官이 帳殿 南쪽에 위치하여(文東武西) 金鼓[9]와 儀仗을 준비하여 영접하였다[7,8]. 冕服[41]을 갖춘 殿下(誥命을 받지 못하였으면 雅靑 團領袍에 翼善冠 靑鞓素玉帶의 차림이다)와 朝服을 갖춘 百官에 의하여 의식이 행하여지면

金鼓←騎兵隊←文武百官←宗親←王世子←大駕鹵簿←殿下輦[42](黑綿布의 大輦)←黃儀仗←鼓樂←香亭←誥命龍亭←祭文龍亭←賻物皁擔←使者

의 班列의 순[9,10]으로 崇禮門을 통하여 入京하고 사신의 숙소인 太平館으로 향하였다[11]. 철저한 禮에 따라 鹵簿를 갖춘 이러한 儀式은 日常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비범함을 집약하고자 하는 意志를 지니고 있으며 "經國大典"에 임금의 禮行이 있을 때 文武官은 궐문 밖에 左右로 나누어 섰다가 임금의 輦이 이르

⑩ 百官 : 모든 官員 百揆百僚 百司 百姓 百均 四海
⑪ 儀仗 : 王室의 儀威에 쓰는 무기 등의 기구로 병장은 儀라 하고 儀威에 쓰는 것을 仗이라 함, 여기서는 黃儀仗을 말함.
⑫ 工人 : 工業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工匠
⑬ 典樂 : 掌樂院의 正6品 雜職
⑭ 香亭 : 香을 담은 擧
⑮ 祭文龍亭 : 祭文이 들어 있는 龍亭
　龍亭 : 나라의 玉冊 金寶등의 보배를 운반할 때 쓰는 肩擧
⑯ 率領部將 : 통솔 부장
⑰ 賻物 : 초상집에 부의로 주[illegible]건, 부물 채거 : 부물을 담은 오색찬란한 이동식 亭
⑱ 綵擧 : "擧"는 받들 "거", 들 "거", 움직일 "거", "綵", 오색비단 "綵"
⑲ 架子 : 臺
⑳ 鼓吹手 : 북을 두들기고 악기를 부는 사람, 軍의 진퇴에 북(鼓)을 치면 움직이고 징(鉦)을 치면 정지한다.
㉑ 夜不收 : 軍中에서 정찰하는 사람
㉒ 紅陽傘 : 紅紵絲를 사용하여 3幅을 만드는데 일산에 비하여 짧게 하고 안에 유소(流蘇)를 드리운다. 黃陽傘 : 黃紵絲를 사용하여 만든 것.
㉓ 紅燭籠 : 휴대용의 촛불을 켜는 초롱, "어전의 초롱은 紅絲의 質로 하고"
㉔ 遮陽扇 : 햇빛을 가리는 扇
㉕ 捧炬軍 : 횃불을 밝히는 軍人
㉖ 頭目 : 勅使와 함께 무역을 위하여 오는 使者 수행원
㉗ 使命 : 官衙에서 심부름 하는 하인
㉘ 書吏 : 아전(衙前)의 통칭
㉙ 館伴 : 서울에 묵고 있는 外國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한 정3품 벼슬
㉚ 遠接使 : 사신을 멀리까지 나아가서 맞이하던 임시 벼슬
㉛ 都廳 : 都監에 종사하는 수석 郎廳
㉜ 郎廳 : 郎官으로 六曹의 주요 사무를 장리하는 정5품 正郎과 정6품 佐郎.
㉝ 差官 : 관원을 임명하여 일정직무를 담당케 함. 이를 테면 시체를 임검하기 위하여 선임한 관원
㉞ 郭委官 : 賜祭 勅使
㉟ 綵亭 : 亭은 정자 "亭", 祭物綵亭 : 제물을 담은 오색찬란한 亭
㊱ 指路者 : 길을 가리키는 사람
㊲ 陪進 : 모시어 나아감
㊲ 帳殿 : 장막으로 만든 궁전
㊳ 結彩 : 色布, 色紙를 새끼에 꽂아 길 양편에 장식함.
㊴ 幄次 : 천막, 천장에서 드리우는 장식막.
㊵ 金鼓, 金鐘, 8音의 하나, 樂器
7) 上同
8) 世宗實錄卷 I 世宗卽位年9月 己酉條
㊶ 冕服 : 임금의 정복, 면류관과 곤룡포를 가리킴. 곤룡포는 붉은 비단으로 지은 것인데 상의에는 해, 달, 별, 용, 산, 꿩을 수 놓았다.
㊷ 殿下輦 : 大輦을 쓰는데 黑綿布로 싼다.
9) 세종장헌대왕실록 21, pp. 338~339.
10) 國朝五禮儀卷之Ⅲ, 범제처, pp. 20~39.
11) 세종장헌대왕실록21, pp. 338~339.

면 차례로 그 뒤를 따르도록 하고 禮行이 아니면 儀仗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鹵簿는 儀仗을 갖춘 國王의 거동 때의 行列이다. 규모에 따라 黃儀仗 大駕 法駕 小駕로 나누어지는데 大駕鹵簿는 詔勅을 맞이할 때와 社稷과 宗廟에 친히 祭享할 때에 이를 사용하였고, 黃儀仗은 中國의 使臣을 맞이할 때에 사용하였다(黃色은 天子를 상징함[12], 圖1) 本報告에 제시된 黃儀仗과 大駕鹵簿에는

黃儀仗

○ 儀仗旗의 種類 : 白澤旗, 丁酉旗, 丁巳旗, 丁卯旗, 丁未旗, 碧鳳旗, 朱雀旗, 黃龍旗

○ 儀仗物의 種類 : 黃龍扇, 黃鳳扇, 黃陽繖, 黃蓋, 金粧刀, 銀粧刀, 金立瓜, 銀立瓜, 金橫瓜, 銀橫瓜, 金鉞斧, 銀鉞斧

大駕導駕의 儀仗(一百六十五柄)

○ 儀仗旗의 種類 : 紅門大旗, 交龍旗, 黃龍旗, 朱雀旗, 天下太平旗, 君王千歲旗, 白虎旗, 靑龍旗, 玄武旗, 六丁旗, 白澤旗, 三角旗, 角端旗, 龍馬旗, 玄鶴旗, 駕龜仙人旗, 碧鳳旗, 金字旗, 鼓字旗, 令字旗, 後殿大旗

○ 儀仗物의 種類 : 靑扇, 龍扇, 雀扇, 鳳扇, 棒雲劍, 水精仗, 紅陽繖, 銀鉞斧, 紅蓋, 靑蓋, 旋旄節, 畢罕, 金斫子, 銀斫子, 金橫瓜, 金立瓜, 銀立瓜, 靑龍幢, 朱雀幢, 白虎幢, 玄武幢, 金粧刀, 金鐙子, 哥舒捧, 熊骨朶, 豹骨朶

가 있으며[13] 圖1과 2에는 黃儀仗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儀仗 黃陽傘과 旗몇개가 그려져 있을 뿐이다. 儀仗의 수효와 각 從官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 圖3을 통하여 大駕 儀仗을 제시하였으나 추후 검토 요망된다.

### 2. 郭委官祭物陪進班次圖

圖2는 郭委官 祭物 陪進 班次圖이다 이 圖는 중국에서 내린 시호(諡號)를 받는 의식인 賜諡儀[43]後에 黃紙[44]에 쓴 誥命을 宗廟에 告하는 儀式인 분황의(焚黃儀)[45]를 위한 祭物 陪進 班次이며,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圖2에 나타난 紙黃旗이다. 儀仗旗는 旗자체가 象徵的인 標指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儀仗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14] 따라서 前術한 黃紙와 紙黃旗[46]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다. 圖2에 나타난 郭委官은 頭目에게 호위된 점에서 中國의 賜祭 勅使이다. 따라서 圖2는 郭委官에 의하여 宗廟로 焚黃儀를 위하여 운반되어지는 祭物의 班次이며 床排圖式은 宗廟에 차려진 祭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賜 祭

天使班次와 祭物 陪進 班次는 焚黃儀와 賜祭儀에서의 祭祀를 위한 祭物을 운반하는 儀式이며 따라서 이러한 賜祭 儀式의 구체적인 상차림과 절차가 어떠하였는가를 圖1, 2와 문헌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 1 焚黃儀

1609年의 焚黃儀를 위한 祭祀 床차림을 나타낸 것이 圖4이다.

1609年에 焚黃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는 究明할 수는 없으나 「세종실록」에 의하면 焚黃儀의 禮饌의 饌品은 卒哭祭와 같고, 또한 卒哭祭儀의 饌品은 우제(虞祭)와 같다 하였으므로 焚黃祭, 卒哭祭, 虞祭 時의 禮饌의 찬품은 같다고 하겠다. 「세종실록」의 虞祭儀의 禮饌에 의하면 "油蜜果14器, 實果6器, 무릇 4줄이다. 花草麵 花草餠 花草湯등 12味인데 肉膳을 겸용하여 果案안에 설치한다. 만약 新

12) 諸橋轍次, 大漢和辭典12卷, 大修館書店, 昭和61年, p. 954.
㊸ 賜贈後에 吉日을 택하여 행한다.
㊹ 黃紙 : 詔書, 天子의 詔는 黃紙에 쓰고…
13) 문화재관리국, 궁중유물목록, pp. 297~305.
㊺ 제계(齊戒)는 卒哭祭와 같다. 贈諡하는 날에 使者가 객사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의식을 행한다.
14) 上同, p. 297
㊻ 黃旗 : 天子의 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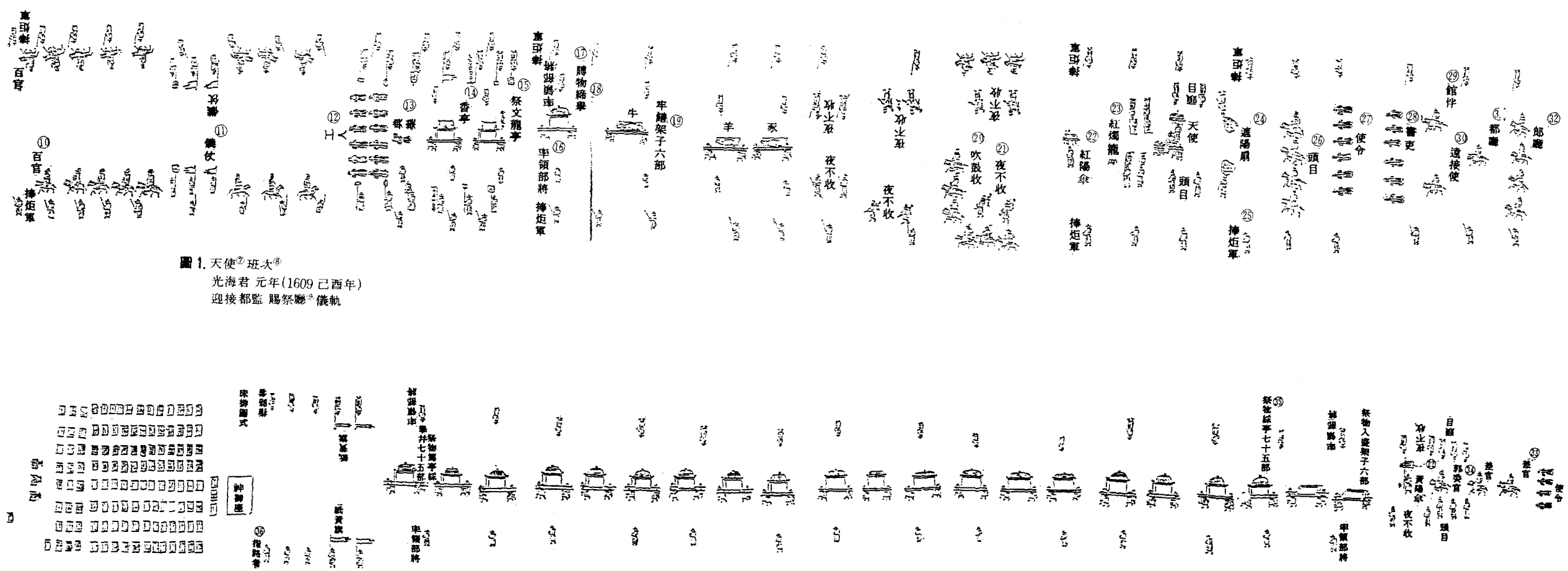


**圖 1.** 天使⑦ 班次⑧
光海君 元年(1609 己酉年)
迎接都監 賜祭廳[9] 儀軌



**圖 2.** 郭委君祭物[10] 陪進班次
光海君 元年(1609 己酉年)
迎接都監 賜祭廳 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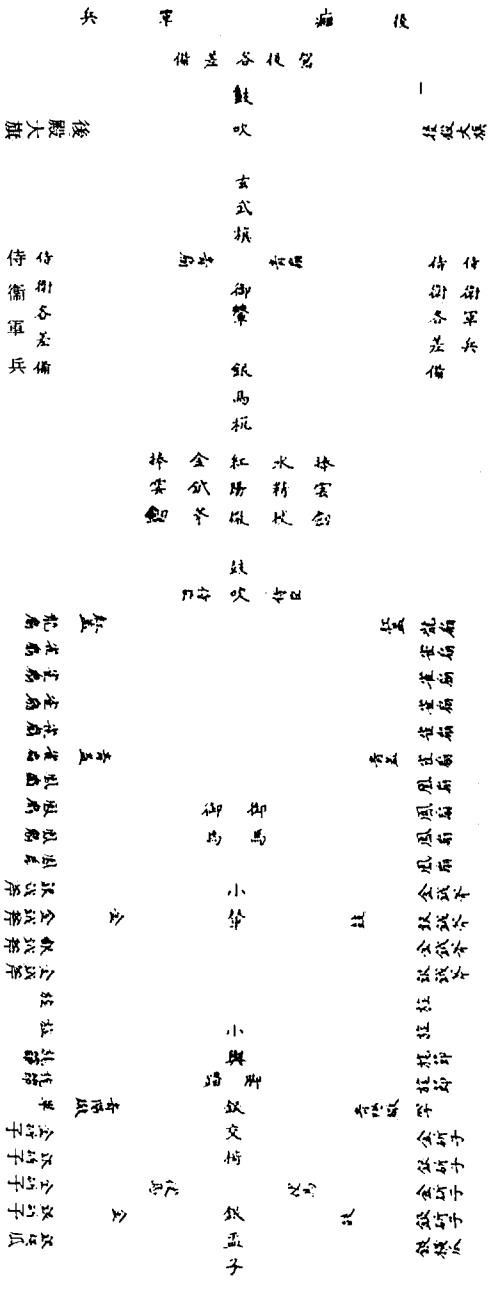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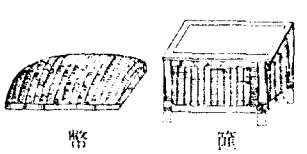
**圖 3.** 大駕導駕 儀仗의 수효와 從官의 위치

物이라면 그 數는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19].

그런데 英祖42年(1765年)에 쓰여진 「太常誌」의 太祖大王, 世祖大王, 元宗大王, 肅宗大王, 英宗大王, 純祖大王의 大祭 祭物에는 中朴桂 4器, 紅散子 3器, 白散子 2器, 煎茶食 3器, 白茶食 2器, 餠 6器(白朴餠 豆團子 霜花 切餠 唐饀餠 油餠), 酒3爵, 實果 6器, 細麵 1器, 湯2器, 四燭 2丁, 五燭 1丁을 쓴다고 하였으며, 實果6器는 榧子 栢子 榛子 柿子 大棗 黃栗을 한다고 하였다[20] 따라서 「세종실록」과 「太常誌」의 饌品을 비교해 보면 찬품의 배열의 윤곽이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李鍾龍의 「李王家の 祭祀」에는 湯, 炙, 片肉, 餠, 實果, 茶食, 散子, 中朴桂의 饌品에 대한 배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21] 圖 4와 같은 그림이 성립된다.

圖 2에 의하면 祭物入盛架子 6部, 祭物綵亭 75部로 祭物이 상당하며 그 床排圖式 또한 상당한데 이

15) 세종장헌대왕실록21, pp. 304~348.
16) 太常誌
17) 李鍾龍, 李王家の 祭祀
18) 文化財管理局, 宗廟祭器, 1976, p.94.
19) 세종장헌대왕실록21, pp. 304~348.


幣 篚

爵

⑰ 篚 ;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서 음식이나 幣를 올리는데 사용.
※ 幣 : 白苧15尺, 속의 너비:5寸2分, 깊이:4寸.
높이 : 5寸, 길이 : 2尺 8寸, 뚜껑의 깊이 : 2寸 8分

⑱ 爵 ; 술잔으로 두 기둥에 세발이 있고 술을 붓는대와 드는 쇠가 있다.
속의 너비 : 2寸 9分, 주둥이 직경 깊이 : 6寸 2分, 무게 : 1斤 8兩, 기둥까지의 전체높이 : 8寸 2分, 깊이 : 3寸 3分

⑲ 鷄彝 ; 술잔에 닭의 형상을 만든 것
春夏의 祼享에 鷄彝와 鳥彝를 사용한다. 닭은 東方의 生物이니 仁이고 새는 南方의 生物이니 禮이다. 이것이 先王께서 春夏제사에 사용하는 까닭이다.

⑳ 鳥彝 ; 술잔에 새의 형상을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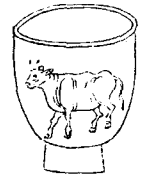
㉑ 犧尊 ; 牛를 尊의 배 위에 장식한 것
소는 큰 犧牲이고 기름이 향내가 나므로 春祭에 적당하고 큰 짐승이 南越(중국의 광동성과 광서성)에서 생산되니 先王께서 春夏 제사에 사용한 까닭이다. 圖 4와 같이 尊을 소의 모양으로도 하였다.
주둥이의 원경 : 1尺 2寸, 밑바닥의 원경 : 8寸, 위 아래의 구멍 지름 : 1尺 5分, 발의 높이 : 2寸.

㉒ 象尊 ; 코끼리를 尊의 배위에 장식한 것, 尊을 코끼리의 모양으로도 하였다.
주둥이의 원경 : 1尺 3寸, 밑바닥의 원경 : 8寸, 위 아래구멍의 지름 : 1尺 5分, 발의 높이 : 2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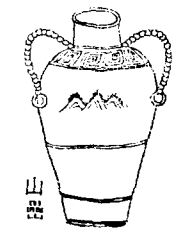
㉓ 山罍 ; 山罍는 山尊이다. 尊에 새겨 그림을 그려서 산에 구름이 있는 형상을 만든다. 뇌(罍)는 구름과 우뢰가 널리 혜택을 베품이 人君이 은혜를 여러 신하들에게 미치게 함과 같음을 취하여 형상한 것
山罍는 夏나라 禹王의 尊이다.

㉔ 明水 ; 井華水, 淸水가 祭祀에 있어서 술의 역할을 한다. 明水가 울창보다 上이다.

鷄彝


犧尊

鳥彝


山罍

象尊

㉕ 울창(鬱鬯) ; 일종의 향초로 祭禮에 쓰는 祭酒에 넣어서 降神에 쓰이는데 香氣가 매우 좋다(검은 기장과 향초로 빚은 술).
㉖ 예제(醴齊) ; 醴酒, 단술(甲酒)로 술찌꺼기와 술이 서로 섞인 것.
㉗ 앙제(盎祭) ; 葱白色의 술 差酒(後酒) ; 술이 익어 넘쳐서 아주 엷은 푸른 빛이 나는 酒.
㉘ 현주(玄酒) ; 물의 別稱, 물의 빛이 검게 보이므로 玄이라 하며 太古때는 술이 없어서 祭祀에 물을 썼다. 따라서 후에 이것을 玄酒라 하였다.

20) 太常誌
21) 李鍾龍, 李王家の 祭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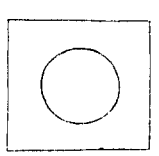
는 上記한「세종실록」의 虞祭 禮物에 "…만약 新物이라면 그 數는 헤아리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圖 4는 다만 기본적인 상차림 圖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다. 圖 4의 幣篚, 香爐, 香合, 燭, 祝坫, 爵, 尊彝의 배열은「세종실록」의 焚黃儀에 대한 기록에 의한 것이다.

지게문(戶)밖에 놓여지는 尊彝는 春 夏에 설치되는 것으로 中國 使臣의 入京 日字가 4月 25日 임으로 圖 4의 尊彝에 해당된다. (秋冬에는 罍彝[60] ; 明水, 黃彝[61] ; 울창, 著尊[62] ; 明水, 著尊 ; 醴齊, 壺尊[63] ; 明水, 壺尊 ; 盎齊, 山罍 ; 玄酒, 山罍 ; 淸酒[22], 春夏秋冬으로 나눈 尊彝의 種類別 사용 이유는 注 ㊾ ~ ㊸ 참조[23]) 제례시 祭器를 비롯한 尊彝의 사용 기원은 注에도 기록하였듯이 古代 中國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으며 商代에서 周代에 걸쳐 사용되었던 酒器인 罍 彝 尊 爵 鼎 豆등이[24]등이 朝鮮王朝의 祭器의 기원으로 생각된다.

서쪽에서 부터 初獻,亞獻,終獻을 위한 圖 4의 술 3爵[25]과 지게문 밖의 尊彝와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는 焚黃儀에서의 儀式 절차를 알 필요가 있다. 표 1은「세종실록」을 통하여 분석한 간단한 焚黃儀 儀式 절차이다. 대체로 哭→盥洗→降神(上香, 鬱鬯을 땅에 붓는다)→獻幣→誥命을 읽음→初獻(醴齊)→祝文을 읽음→盥洗→亞獻(盎齊)→盥洗→終獻(淸酒)→誥命을 불사름→哭 및 四拜[26]의 절차 임을 표로서 알 수 있는데 따라서 圖 4의 지게문 밖의 尊彝에서 明水와 玄酒는 물이고, 술의 맑기 정도에 따라 예제→앙제→청주임을 (注 ㊹~㊽ 참조) 볼 때 明水와 玄酒는 초헌, 아헌, 종헌에서 사용하지 않고, 초헌은 예제, 아헌은 앙제, 종헌은 청주이며, 울창은 降神을 위한 것이다. 예제 앙제 청주는 爵으로 받고, 울창은 瓚으로서 받음을 알 수 있다.

圖 4의 禮饌의 조리법과 모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은 없으나 祭物에서의 中朴桂, 散子, 藥果, 脯, 白餠등은 네모난 형태로, 茶食등은 원모양 형태이다[27] (圖 2의 祭物 진설도가 四角인 점을 참고 바

22) 세종장헌대왕실록21, p. 305.
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헌대왕실록20, 천풍인쇄주식회사, 1981, pp. 16~28.
24) 中國 食文化事典, 角川書店, 昭和63年, pp. 251~254.
㊾ 坫(점) ; 제사 지내는 일을 삼가하는 뜻으로 古치는 意義가 있기 때문에 坫이라 하였다. 祝版이며 爵을 놓기나 尊을 받들기도 한다. 틀은 金으로 만드는데 몸(體)은 네모가 나서 땅에 두어도 평평하다.
무게 ; 2斤 9兩, 세로의 너비 : 9寸 2分
㊿ 罍彝 ; 罍는 稼로서 가이(稼彝)는 화가(禾稼, 곡식)을 그린 것이다. 黃彝는 黃目의 尊이다. 黃目은 黃金으로서 눈(目)을 만든 것으로 울기(鬱氣)가 尊에 올라 가므로 黃은 中, 目은 氣의 淸明한 것이다. 술잔 속에 술을 따라서 밖에 청명함을 말한 것이다.
秋冬제사에 降神할 때에 가이와 황이를 사용하는데 商나라에서는 가이(白色)를 사용하고 周나라에서는 黃目(黃色)을 사용하였다. 白色은 陰의 質로 義며 黃色은 陰의 美로 信이다. 이것이 先王께서 가을과 겨울 제사에 가이와 황이를 사용한 까닭이다.
(61) 黃彝 ; 가이(罍彝) 참조
(62) 著尊 ; 陽이 내려와서 땅에 부착된 것을 形象하였고, 호준(壺尊)은 陰이 빙 둘러서 만물을 감싼 것을 형상하였다. 이것이 先王께서 가을과 겨울 제사에 착준과 호준을 사용한 까닭이다.
무게 ; 4斤 7兩, 높이 ; 8寸 4分 5里, 주둥이 직경 ; 4寸3分, 中腹의 직경 ; 6寸 2分, 깊이 ; 8寸 3分
(63) 壺尊 ; 착준(著尊) 참조.


坫

罍彝

黃彝

著尊

壺尊

25) 세종장헌대왕실록20, pp. 29~40.
26) 세종장헌대왕실록21, pp. 344~348.
27) 太常誌

**表 1.** 焚黃儀 儀式 節次

| 人 物 | 儀 禮 行 動 | |
|---|---|---|
| | ※ 贈諡하는 날에 使者가 객사로 돌아가기를 기다려 儀式을 행한다. | |
| 判通禮 | 齊殿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행례하라"고 계청한다. | |
| 殿 下 | 杖을 짚고 나온다. | |
| 贊 禮 | 殿下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를 나아가게 한다. | |
| 執 禮 | "哭하라"고 한다. | 哭 |
| 贊 禮 |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한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집 례 | "곡을 그치라"고 한다. | |
| 찬 례 |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집 례 | "尊幣禮를 행하라"고 한다. | 盥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盥洗位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 洗 |
| 전 하 | 손을 씻는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東階로 올라가서 尊所로 나아간다. | |
| 전 하 | 西向하여 선다. | |
| 近 侍 | 따라 오른다. | |
| 執尊者 | 冪을 든다. | |
| 근 시 | 울창을 떠낸다. | |
| 근 시 | 瓚[6]으로 鬱鬯을 받는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靈座 앞으로 나아간다. | 降 |
| 전 하 | 북향하여 선다 | |
| 찬 례 | "꿇어 앉으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꿇어 앉는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근 시 | 香合을 받들어 올린다. | 神 |
| 근 시 | 香爐를 받들어 올린다. | |
| 찬 례 | "세번 上香하라"고 계청한다. | (上香) |
| 근 시 | 향로를 案 위에 드린다. | |
| 근 시 | 瓚을 올린다. | |
| 찬 례 | "瓚을 잡고 땅에 술을 부으라"고 계청한다. | (울창을 땅에 붓는다) |
| 근 시 | 幣篚를 올린다. | |
| 찬 례 | "執幣獻幣 하라"고 계청한다. | |
| 근 시 | 폐백을 靈座앞에 드린다. | |

**表 1.** 계속

| 人 物 | 儀 禮 行 動 | |
|---|---|---|
| 찬 례 |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계청한다. | 獻 幣 |
| 전 하 |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르게 한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전 하 |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르게 한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戶)을 나와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 |
| 전 하 | 東階로 올라가서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 |
| 찬 례 | "꿇어 앉으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꿇어 앉는다. | 誥命을 읽음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大 祝 | 誥命을 취하여 東向하여 꿇어 앉아 읽는다 | |
| 찬 례 |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르게 한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尊所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 |
| 執 禮 | "初獻禮를 행하라"고 한다. | 初 獻 |
| 집준자 | 冪(멱)을 든다. | |
| 근 시 | 멱으로 醴齊를 떠낸다. | (醴齊) |
| 근 시 | 爵으로 술을 받는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 |
| 찬 례 | "꿇어 앉으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꿇어 앉는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근 시 | 爵을 꿇어앉아 올린다. | |
| 찬 례 | "執爵獻爵 하라"고 계청한다. | |
| 근 시 | 爵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 |
| 찬 례 |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고 계청한다. | 祝文을 읽음 |
| 大 祝 | 영좌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東向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 |
| 찬 례 |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르게 한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내려가니 제자리로 돌아간다. | |
| 집 례 | "亞獻禮를 행하라"고 한다. | |
| 謁 者 | 아헌관을 인도하여 盥洗位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관세하게 한다 | 盥 洗 |

**表 1.** 계속

| 人 物 | 儀 禮 行 動 | |
|---|---|---|
| 謁 者 | 아헌관을 이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 |
| 집준자 | 冪을 들고 盎齊를 떠낸다. | 亞 獻 |
| 집사자 | 爵으로 술을 받는다. | (盎齊) |
| 亞獻官 |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 후 꿇어 앉는다. | |
| | 執爵獻爵 한다. | |
| 집사자 | 영좌앞에 爵을 드린다. | |
| 아헌관 |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르게 한다. | |
| 알 자 | 아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 |
| 執 禮 | "終獻禮를 행하라"고 한다 | 終獻 |
| 알 자 | 종헌관을 인도하여 行禮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 (淸酒) |
| 執 禮 | "焚黃하라"고 한다. | |
| 大 祝 | 誥命(사본임)을 받들어 燎所로 나아가 이를 불사른다. | 誥命을 불사름 |
| 찬 례 | "꿇어엎아 부복하고 곡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하여 슬퍼한다. | 哭및 四拜 |
| | ※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 |
| 집 례 | "곡을 그치고 사배하라"고 한다. | |
| 찬 례 |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르게 한다. | |
| | ※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 |
| 찬 례 | "禮를 마쳤다"고 아뢴다. | |
| 찬례,알자,봉례랑 | 전하, 아헌관, 종헌관, 대군, 종친,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 |
| 典祀官 |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禮饌을 거둔다 | |
| 大 祝 |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 |
| | 誥命은 함에 넣어 이를 갈무리 한다. | |

람). 祭祀에서의 6色 實果는 원래 14色을 줄인 것으로 14色이란 生栗, 胡桃, 銀杏, 生梨, 櫻桃, 李實, 林檎, 葡萄, 紅柿, 黃杏, 眞茈, 西茈이다[28].

표 1, 2 및 圖 4, 圖 6이 世宗實錄에서의 五禮를 기초로 한 것이고, 本 論에서는 1609年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50年의 시대적인 차가 있다. 世宗實錄의 五禮의 골격은 唐宋의 五禮였으며, 성종朝의 공식적으로 편찬한 「國朝五禮儀」「國朝五禮儀序例」는 그 저본은 세종 때의「五禮」였다[29] 그후 1744年 英祖는 성종朝의 「國朝五禮儀」와 「國朝五禮儀

64 瓚 ; 周禮圖에 이르기를 "玉人(玉工)이 圭로서 祼(라)하니 1尺2寸이며 찬(瓚)이 있어 廟에 제사한다"하였다. 注에 "祼(라)은 처음 술잔을 드려 降神함을 이름이요 瓚은 槃과 같은데 그 자루에 圭를 사용하고 流箭이 있어 술을 따르게 된다" 하였다.

65 冪(멱) ; 구름같은 것이 덮여 있음, 덮을 "멱".

瓚

28) 上同

29) 李範稷, 中國史書의 五禮와 世宗朝의 五禮, pp. 292~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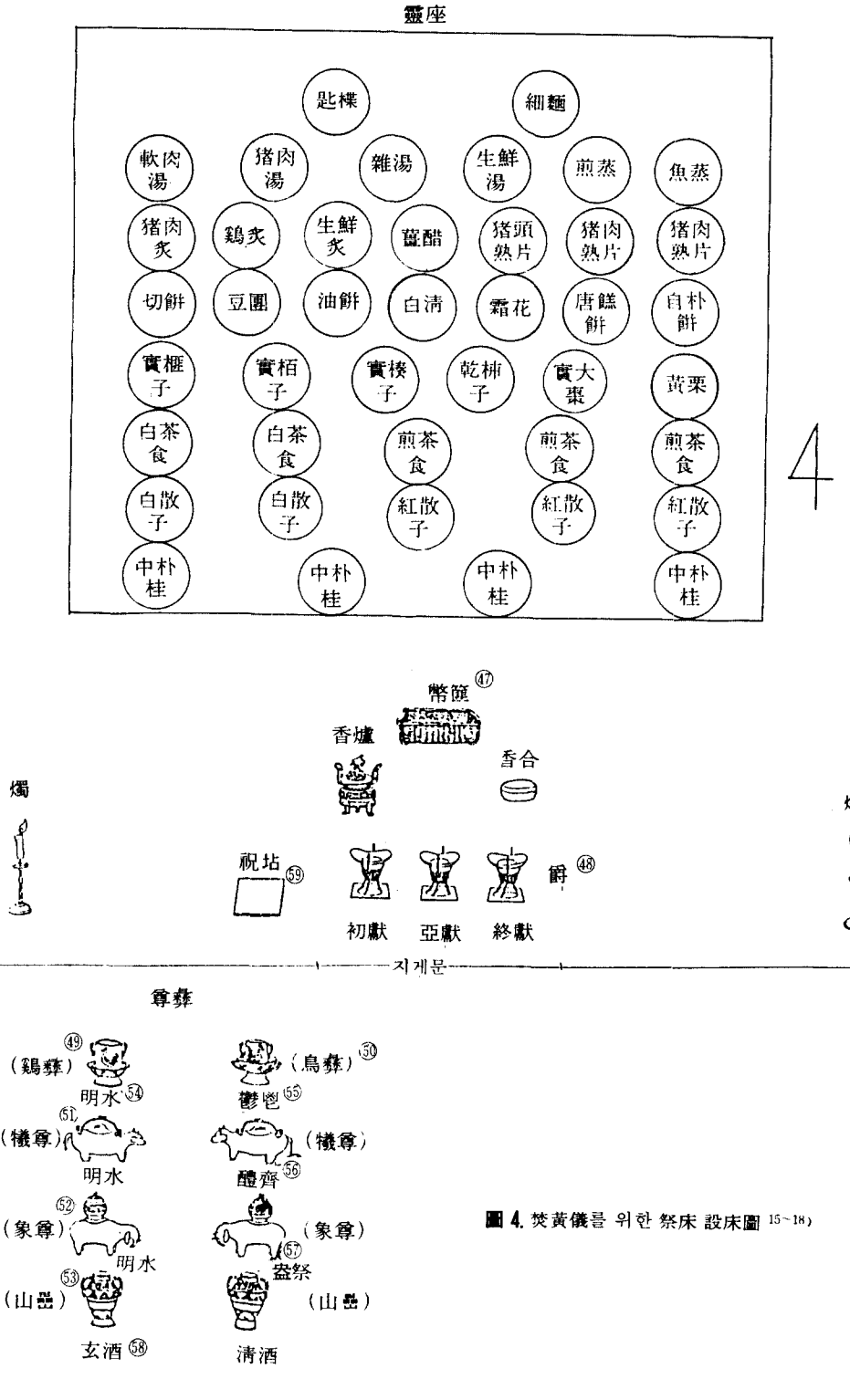



**圖 4.** 焚黃儀를 위한 祭床 設床圖 [15~18]

序例」의 내용중 시대의 변천에 따라 첨삭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 "윤급"으로 하여금 「國朝續五禮儀」와 「國朝續五禮儀序例」를 찬정하도록 하였다[30]. 즉 세종朝의 五禮儀는 큰 變化 없이 儒敎의 경학과 조선왕실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왕조의 정치 권력의 구조의 일단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朝鮮朝의 五禮儀를 밝히기 위해서는 唐 宋의 五禮가 究明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中國古代 思想가운데 儒敎사상이 정치 권력과 연계되면서 皇室의 권위를 대폭 담아 있는 五禮儀[31]는 곧 朝鮮王朝의 권위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朝鮮朝의 文化(食, 儀禮, 衣등) 정치 등은 中國과 연계하여 고찰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과 바다에서 生長하는 모든 動物, 植物, 魚物이 祭物이 되며(나라안의 모든 것이 帝王의 所有임을 뜻함), 이 제물의 진설은 "더없이 높은 先王에게 모든 정성을 바친다"는 意味도 있기 때문에[32] "그 數는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太古에 날 것으로 먹고 살던 옛날을 잊지 않으려는 尙古의 뜻이 祭物에도 나타나 날 것과 익힌 것을 함께 쓰며 담구어서 익은 술과 井水 우물물을 明水 玄酒라 하여 역시 함께 쓰고[33], 술을 담는 尊은 帝王의 은혜가 만민에게 미치며 음양의 이치와 제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뜻이 담겨 있다[34]. 이러한 朝鮮王朝의 祭物과 祭器 역시 中國의 영향을 받았음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 2. 賜祭儀

賜諡한 후 吉日을 택하여 행하는 賜祭儀는 中國使臣이 직접 참여한다는 뜻에서 그 儀禮 절차를 고찰 할 필요가 있다. 표 2는 「世宗實錄」에 나타난[35] 賜祭儀의 儀禮 절차이다. 대체로 哭→使者入殿→虞主와 几의 설치→使者의 영접→使者의 上香 및 尊爵→祭文을 불사름→使者배송→哭 및 四拜로서, 使者가 入殿하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百官이 使者를 모시러 太平館으로 가서 朝服을 갖추고 말을 타고 앞에서 使者를 인도하는데 그 班列의 순서를 보면 百官←黃儀仗←鼓樂←祭文龍亭←牢饌綵輿←使者이며, 사자를 영접할 때는 朝鮮國王은 서쪽에서 東向하여 서게 하고, 使者는 동쪽에서 西向하여 서게 하며, 국왕은 西門을 사자는 東門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使者가 上香과 尊爵할 때는 서서하고 있고, 祭文을 案위에 놓을 때는 國王은 北向하여 서고 있다. 기본적으로 上座의 위치와 向背는 圖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쪽에서 남향하는 것이고 다음이 동쪽에서 서향, 그 다음이 서쪽에서 동향, 맨아래 좌석이 남쪽에서 북향하는 것이며, 式殿의 堂上을 오르고 내리는 것에서도 主人되는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東쪽의 것으로 阼階(동편 섬돌로 동쪽은 主人을 상징하고 있다)라 하여 高麗朝때부터 구별하고 있었다는 것에서[36], 朝鮮朝의 使臣 접견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국왕은 서쪽에 서고 西門을 이용하고, 사자는 동쪽에 서고 東門을 이용하며 심지어는 祭文을 案위에 놓을 때는 신하로 상징하는 北向하는 자리에 國王이 서면서 더욱이 上香과 尊爵 時에 使者는 서서 하고 있는 것은 明나라에 대한 완전한 事大的 내용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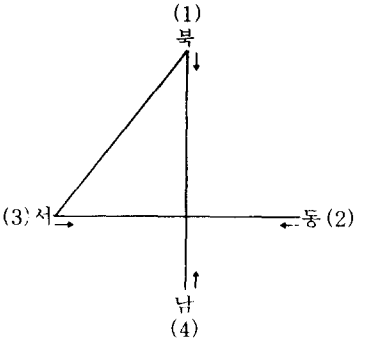



**圖 5.** 上座의 위치와 向背

30) 法制處, 國朝五禮儀, 1982.
31) 李範稷, 中國史書의 五禮와 世宗朝의 五禮, pp. 295~296.
32) 문화재관리국, 궁중유물목록, p. 289.
33) 上同 p. 289.
34) 세종장헌대왕실록 20, pp. 17~28.
35) 세종장헌대왕실록 21, pp. 348~350.
36) 李範稷, 高麗史 禮志「軍禮 賓禮」의 검토, p.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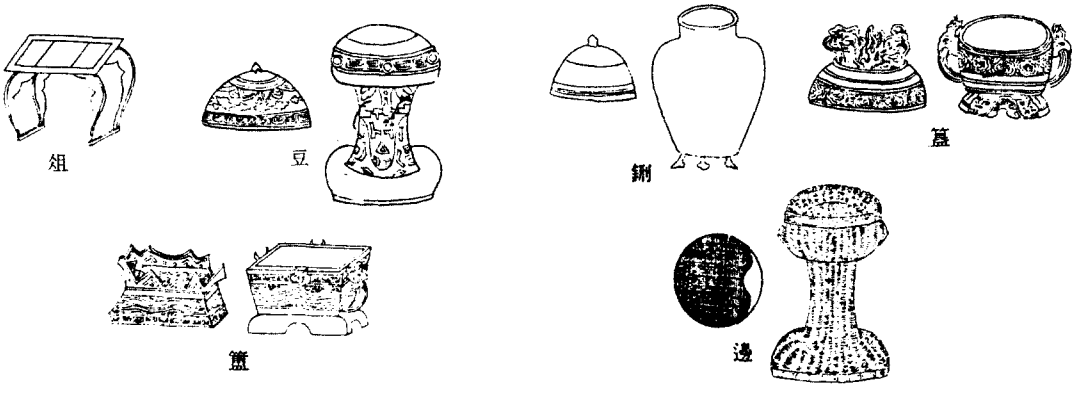
**표 2.** 賜祭儀 儀式 節次

| 人 物 | 儀 禮 行 動 | |
|---|---|---|
| | 賜諡한 후 吉日을 택하여 행한다. | |
| 贊 禮 | 전하를 인도하여 杖을 짚고 들어가서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 |
| 典 儀 | "곡하라" 한다. | |
| 찬 례 |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하라"고 계청한다. | 哭 |
| 전 하 |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한다. | |
| | ※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 |
| 전 의 | "곡을 그치고 사배하라"한다. | |
| 찬 례 |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 |
| | ※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의 齊殿으로 나아간다. | |
| | 전하께서 魂殿으로 나아가려할 때 百官이 分司하여 太平館으로 나아간다. | |
| | 使者 : 祭文을 龍亭 안에 놓는다. | |
| | 百官이 朝服을 갖추고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하는데 | 使者 |
| | 百官←黃儀仗←鼓樂←祭文龍亭←牢饌綵輿←使者의 순으로 말을 타고 온다. | 入殿 |
| | 魂殿 문밖에 이르면 龍亭은 帳殿에 안치한다. | |
| | 牢饌輿는 魂殿으로 들여 놓는다. | |
| 引 禮 | 使者를 인도하여 座次로 들어간다(使者는 素服으로 갈아입는다). | |
| 典祀官 | 그 소속을 거느리고 祭文案을 靈座의 왼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香爐, 香合, 燭, 牢饌을 진설한다. | |
| | 尊을 지게문(戶) 밖의 왼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 |
| 殿 司 | 爵 3개를 尊所에 둔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西階 아래의 자리로 나아간다. | |
| 大 祝 | 虞主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설치하고 几를 그 뒤에 설치한다. | 虞主와 几를 설치 |
| 전 의 | "곡하라"한다. | |
| 찬 례 | "곡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곡한다. | |
| | ※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 |
| 찬 례 | "杖을 놓고 絰을 벗으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장을 놓고 질을 벗는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中門을 나온다. | |
| 찬 례 | "곡을 그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곡을 그친다. | |
| | ※ 종친 및 백관들도 곡을 그친다. | |

**表 2.** 계속

| 人 物 | 儀 禮 行 動 |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大門 밖의 서쪽에서 使者를 영접한다. | |
| | 전하를 東向하여 서게한다. | 使者 |
| 인 례 | 使者를 인도하여 座次에서 나와 서향하여 서게 한다. | 迎接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西門으로 먼저 들어와서 西階 아래의 자리로 간다. | |
| | ※ 龍亭이 正門으로 들어온다. | |
| 使 者 | 뒤따라 들어온다. | |
| 찬 례 | "국궁(鞠躬)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東向하여 몸을 굽힌다. | |
| 찬 례 | "평신(平身)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몸을 바로 하고 북향하여 선다. | |
| | ※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 |
| | (文官은 서향하여 몸을 굽힌다) | |
| | ※ 龍亭이 殿으로 오른다. | |
| 사 자 | 祭文을 받들어 案위에 놓는다. | 使者의 上香 및 |
| 인 례 | 사자를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간다. | 尊爵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西階로 올라와 동향한 자리(東向位)로 나아간다. | |
| 인 례 | 사자를 인도하여 香案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 |
| 인 례 | "세번 上香하고 서서 祭酒하라"고 贊한다. | |
| 사 자 | 서서 上香하고 서서 祭酒한다. | |
| | 연달아 3爵을 드린다. 尊爐와 尊爵은 執事者가 한다. | |
| 官 員 | 祭文을 받들고 서향하여 서서 읽는다. | 祭文을 불사름 |
| | 제문을 받들고 燎所로 나아가서 불사른다. | |
| 인 례 | 使者를 인도하여 東門으로 나온다. | 使者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西門으로 나와 大門밖에서 使者를 拜送한다. | 拜送 |
| 찬 례 | "질을 띠고 장을 짚고 곡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질을 띠고 장을 짚고 곡하면서 들어오고 종친 및 백관들도 모두 곡한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中門에 이른다. | 哭 및 四拜 |
| 찬 례 | "곡을 그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곡을 그친다. | |
| | ※ 종친 및 백관들도 곡을 그친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도로 拜位로 나아간다. | |
| 전 의 | "사배하라"고 한다. | |
| 찬 례 | "국궁하여 사배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계청한다. | |
| 전 하 | 몸을 굽혀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 |
| | ※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 |
| 찬 례 | 전하를 인도하여 齊殿으로 돌아 간다. | |
| 奉禮郞 | 종친 및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 |

㊻ 삶은소의 腸, 胃, 肺.
㊼ 삶은양의 腸, 胃, 肺.
㊽ 돼지의 삶은 膚 (삶)
㊻~㊽ : 길이 ; 1尺 8寸, 속의 너비 ; 8寸, 높이 ; 8寸 5分. 양쪽끝은 朱色으로 칠하고, 가운데는 黑色으로 칠한다.
㊾ 糝食 : 소, 양, 돼지(糝)고기를 작게 썰어서 稻米 2에고기 1을 섞어 끓인 것.
㊿ 酏食 : 이리(狼)가슴속의 기름과 稻米로서 함께 만든 된 죽
(71) 豚拍 : 돼지의 갈비인데 혹은 어깨를 말하기도 한다.
(72) 脾析 : 소의 처녑(百葉), 豚拍과 脾析은 齊이다. 齊(醢와 醬에 섞어서 가늘게 썰은 것)
(73) 魚醢 : 물고기의 젓
(74) 筍菹 : 죽순김치
(75) 兎醢 : 토끼고기의 젓
(76) 芹菹 : 미나리김치
(77) 鹿醢 : 사슴고기의 젓. 醢를 만드는 사람은 그 肉을 脯로 떠서 말리고 그 후에 잘게 썰어서 수수로 만든 누룩과 소금에 섞고 좋은 술에 담가 항아리속에 백일동안 두어 만든 것
(78) 菁菹 : 무우김치
(79) 醓醢 : 醓은 肉汁으로 醢의 즙이 많은 것.
(80) 韭菹 : 부추김치
㊾~(80) ; 나무로 만드는데 크기는 변(邊)과 같다.
(81) 和羹 : 鉶에 담는 국으로 五味가 조화되고 날고기의 삶은 것을 적절히 넣은 국. 羔滑(모활)을 넣을 때에는 苦薇를 사용하는데 葵菜를 넣는다.
五味를 갖추어 끓인 국을 담는 鉶鼎
(82) 簋(궤) : 黍(메기장)
(83) 〃 : 稷(차기장)
(82), (83) : 뚜껑까지 합하여 무게가 9斤(구리로 주조). 뚜껑까지 전체의 높이 ; 6寸 7分, 깊이 ; 2寸 8分, 속의 너비 ; 5寸, 中腹의 직경 ; 7寸 9分, 너비 ; 5寸 6分
(84) 簠(보) : 稻(벼)
(85) 〃 : 粱(차조, 粘粟)
(84), (85) ; 구리를 사용하여 주조 뚜껑까지 무게가 13斤 2兩, 뚜껑까지 높이 ; 7寸, 깊이 ; 2寸, 속의 너비 ; 8寸 1分, 中腹의 직경길이 ; 1尺 1分.
(86) 黃栗 : 말린 밤
(87) 乾棗 : 말린 대추
(88) 魚鱐 : 말린 물고기(乾魚)
(89) 形鹽 : 소금을 범(虎)의 형상과 같이 만든 것
(90) 鹿脯 : 사슴고기로 만든 포
(91) 芡仁(검인) : 가시연밥의 알맹이
(92) 菱仁(능인) : 마름열매
(93) 榛子(진자) : 개암
(86)~(97) ; 대나무로 만드는데 주둥이의 직경 ; 4寸 9分, 발까지의 전체 높이 ; 5寸 9分, 깊이 ; 1寸 4分, 발의 직경 ; 5 寸 1分, 巾는 거친 葛布를 사용하는데 겉은 검은색, 속은 붉은색으로 葛布 1폭으로 둘렀다.



明과의 관계가 諸候國의 위치에서 禮의 내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圖 6은 賜祭儀時의 祭物 진설을 圖 1과 문헌을[37~39] 근거로 하여 만든 것이다. 圖 1에는 牛, 羊, 豕를 비롯하여 牢饌架子가 6部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牢饌이란 "진수성찬"을 뜻한다[40]. 따라서 牛, 羊, 豕를 진설하는 祭床을 진설은 12豆 12邊이며, 다만 宣祖를 위한 것이므로 3簠 2簋 2簠 3爵이 되고, 지게문(戶)밖의 진설을 尊과 罍로서 한 것은 표 2의 賜祭儀 의식 절차에 의하면 尊만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使臣은 祭酒와 술 3爵을 올리는데 鬱鬯을 받는 瓚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Ⅳ. 맺는말

1609年의 迎接都監 賜祭廳 儀軌의 天使 班次와 祭物 陪進 班次를 통하여 焚黃儀 賜祭儀를 중심으로 分析 究明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天使 班次는 弘濟院에서 慕華館까지의 班列이며 그 순서는 百官←黃儀仗←鼓樂←香亭←祭文龍亭←賻物綵擧←牢饌架子←使者←遠接使이다.
2. 天使班次는 賜賻儀, 賜謚儀, 賜祭儀를 위한 물품을 운반하는 賜祭天使班列이다.
3. 祭物 陪進 班次는 郭委官에 의하여 宗廟로 焚黃儀를 위하여 운반되어지는 祭物의 班次이다.
4. 焚黃儀에서의 祭物은 中朴桂 四器, 白散子 2器, 紅散子 3器, 白茶食 2器, 煎茶食 3器, 實果 6器, 餠 6器, 炙 3器, 熟片 3器, 湯 4器, 蒸 2器, 麵 1器, 3 爵, 鬱鬯, 醴齊, 盎齊, 淸酒, 明水. 玄酒이다
5. 焚黃儀에서의 儀式 절차는 哭→盥洗→降神→獻幣→誥命을 읽음→初獻→축문을 읽음→盥洗→亞獻→盥洗→終獻→誥命을 불살름→哭 및 四拜이다.
6. 焚黃儀의 祭物 中 酒에 있어서 鬱鬯은 降神을 위하여, 醴齊는 初獻, 盎齊는 亞獻, 淸酒는 終獻에 각각 사용되었다.
7. 賜祭儀에서의 儀式 절차는 哭→使者入殿→虞主와 几의 설치→使者영접→使者의 上香 및 尊爵→祭文을 불살름→使者배송→哭 및 四拜이다.
8. 賜祭儀에서 太平館에서 부터 入殿까지의 使者 班列의 순서는 百官←黃儀仗←鼓樂←祭文龍亭←牢饌綵輿←使者이다.
9. 賜祭儀에서의 祭物은 豕腥 羊腥 牛腥, 3俎, 12豆, 12邊, 3鉶, 2簠, 2簋, 3爵, 醴齊 盎齊, 淸酒, 明水, 玄酒이다.

## 參考文獻


1. 金尙寶・李盛雨, 朝鮮王朝의 迎接都監盤膳色儀軌에 관한 分析的 硏究, 한국식문화학회지, Vol. 6, No.4, 1991.
2. 金在得, 古文獻用語解例, 培英社, 1983.
3.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昭和61年.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헌대왕실록21, 천풍인쇄주식회사, 1981.
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헌대왕실록20, 천풍인쇄주식회사, 1981.


---

㉞ 粉餈 ; 콩가루를 입힌 인절미
㉟ 糗餌 ; 볶아 말린 쌀과 보리인데 이것을 찧어서 물에 반죽하여 음식을 만드니 단단하고 깨끗함이 玉과 같다.
㊱ 黑餠 ; 수수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四角形으로 자른다
㊲ 白餠 ; 쌀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四角形으로 자른다.
㊳ 肝膏(간고) ; 肝과 창자 사이에 낀 기름
㊴ 羊腥 ; 羊의 생고기
㊵ 豕腥 ; 돼지의 생고기
㊶ 牛腥 ; 소의 생고기. 祭床에 腥을 쓰는 것은 古意를 숭상하기 때문이며 牛腥에는 黑牛가 원칙이나 仁祖16年이후에는 黃牛를 썼다.

37) 세종장헌대왕실록 21, pp. 348~350.
38) 세종장헌대왕실록 20, pp. 29~44, 16.
39) 문화재관리국, 宗廟祭器
40) 諸橋轍次, 大漢和辭典7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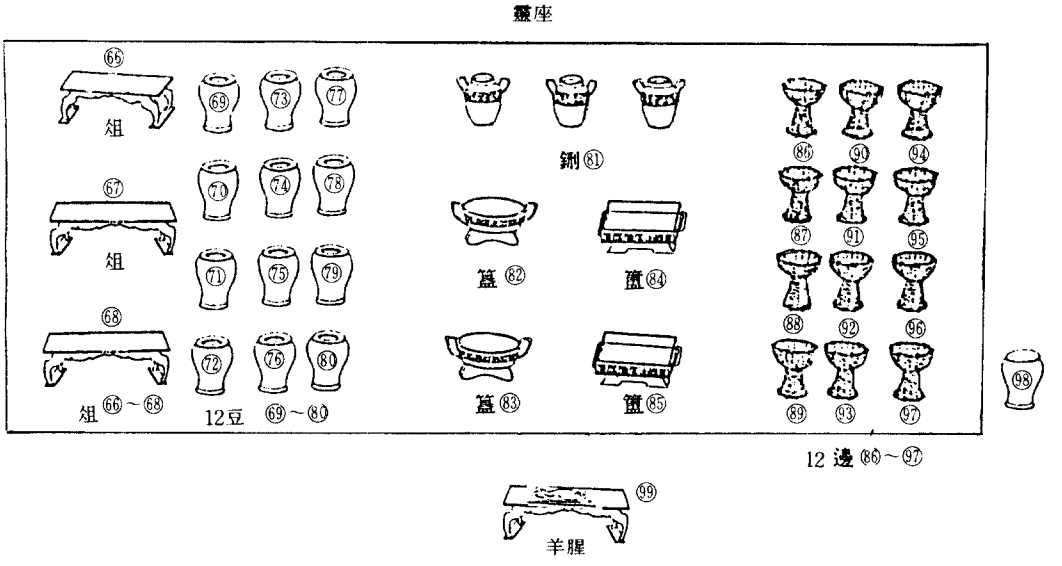



**圖 6.** 賜祭儀를 위한 祭床 設床圖

6. 李鉉淙, 明使接待考.
7. 世宗實錄 卷Ⅰ.
8. 國朝五禮儀 卷之Ⅲ, 법제처.
9. 문화재관리국, 궁중유물목록.
10. 太常誌.
11. 李鍾龍, 李王家の 祭祀
12. 문화재관리국, 宗廟祭器.
13. 中國食文化事典, 角川書店, 昭和 63年.
14. 李範稷, 中國史書의 五禮와 世宗朝의 五禮.
15. 國朝五禮儀 卷之Ⅰ 법제처.
16. 李範稷, 高麗史 禮志 軍禮 賓禮의 검토.
17. 李盛雨, 朝鮮王朝迎接食儀軌, 미원문화재단, 1989.